

나주시, 쌀 값 하락에 따른 쌀 산업 위기대책 마련 간담회

45년 만에 국내 쌀 가격 최대 폭 하락 쌀 산업 위기 진단

윤병태 시장, 농협조합장·통합RPC대표 관계자 의견 수렴

윤병태 나주시장이 기록적인 쌀 가격 폭락에 따른 쌀 산업 위기 대책 마련을 위해 농협·RPC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나주시는 지난 19일 시청 이화실에서 '쌀 가격 안정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윤병태 시장, 농협중앙회 권영대 나주시지부장, 김덕환 농정지원단장과 남평·마한·공산·동강·다시농협 조합장, 임봉의 통합RPC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쌀 가격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재고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쌀 산업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합RPC에 따르면 7월 5일 기준 80kg쌀 가격은 17만9404원으로 작년 대비 무려 4만 4116원이 하락했다. 농협 조합장, 통합 RPC대표는 "지난 해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 영농을 위해 자체 매입을 실시했으나 올해 쌀 값 폭락으로 지역 농협에 큰 손실이 발생해 경영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의 최저가 입찰방식의 시장 격리로 인해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손실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농협의 경영 적자 해소를 위한 신속 구매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제안해 준 의견을 바탕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혁신산단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 쌀 구매운동 캠페인 전개와 더불어 출항 향우회, 농협 등과 연계해 수도권지역 쌀 소비 판촉 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 해 시설현대화 사업자로 선정된 나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 사업비 178억원 중 시 예산 43억원을 연차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23년까지 미곡종합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완료, 향후 전국 12대 브랜드 쌀 선정

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나주=송준표 기자



곡성에서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 휴가 보내세요

이틀간 농촌 관광·휴양시설 안전 및 방역 특별점검 실시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곡성군이 21일과 22일 양일간 농촌관광·휴양시설에 대한 안전 및 방역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을 비롯한 농촌관광시설 총 114개소로, 오는 29일까지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곡성군은 먼저 소방서 및 전기·가스 전문가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관광농원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33개소에 대해 전문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외 농어촌민박 78개소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해당 사업장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크게 안전 관리 상태, 화재 안전 관리, 위생 관리 실태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먼저 안전 관리 상태 부문에서는 책임자의 소방 안전 교육 이수 여부, 정기 점검 실시 여부, 비상시 대피경로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한다. 화재 안전 관리 분야에서는 소방 시설의 사용 및 점검,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 등을 꼼꼼하게 살핀다. 위생 관리 분야에서는 식재료 보관과 조리실 청결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곡성군은 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민박 소방안전 시설 지원사업을 안내해 시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하절기 특별 방역 대책과 연계해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이송객 준수 사항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의 여름철 감염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곡성=양혜영 기자

화순군, 시설직 공무원 직무역량강화 교육

22일까지...설계 프로그램·AutoCAD 등 전문 교육

화순군이 시설직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화순군은 19일부터 22일까지 시설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설계 프로그램, AutoCAD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

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농업 기반 시설 사업에 대해 자체설계 능력 향상 등 시설직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구조검토와 안정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제외한 읍·면 추진 사업에 대해 자체설계가 가능하지만, 매년 3~5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 시설직 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해 원활한 민원 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군은 하반기에도 시설직 공무원이 갖춰야 할 ▲기본자세 및 분야별 세부 감독요령 ▲ 각종 건설공사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대처 및 해결방안 ▲기술인으로서 갖춰야 할 직무역량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장성군-상무대, 민선8기 첫 간담회 가져

장성군이 민선8기 들어 처음으로 '장성군-상무대 상생협력 강화 간담회'를 열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장성읍 소재 식당에서 김한중 장성군수와 고재진 장성군의회 의장, 한영훈 상무대 보병학교장, 강인규 포병학교장, 박수 기계화학교장, 류동관 화생방학교장이 소통과 협력방안 모색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상무대는 ▲상무대 군인, 가족들을 위한 작은 영화관 마련 ▲음악회 개최 ▲상무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문화·체육시설 이용 혜택 ▲보훈가족 우대 등을 건의했다.



장성군은 간담회 정례화, 업무 활성화를 위한 군-상무대 교류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김수권 기자

구례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공직자 친절 교육

구례군은 19일 선진아트홀에서 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공직자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교육은 구례군 자문노무사이자 시대 노무사 대표인 조흥연 노무사가 담당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인의 70% 내외가 경험했다고 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광범

위하게 발생한 상황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예방,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어서 가치공감컨설팅 대표 임지선 강사는 민원인과 공무원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공직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구례=박진호 기자



전라남도 제2호 민간정원 담양 죽화경, 유럽 수국 축제

전라남도 제2호 민간정원 담양 죽화경에서 오는 23일부터 유럽 수국 축제가 열린다.

죽화경은 담양군 봉산면 유산리에 위치, 약 15,000㎡의 정원에 500여 종의 초목과 꽃들이 어우러진 정원이다.

축제기간 온 정원을 수놓은 새하얀 눈꽃송이 같은 유럽 수국을 만끽할 수 있으며 정원에서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사진 콘테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